

■ [공통: 문학·독서]

01. ⑤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① 10. ③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② 16. ④ 17. ② 18. ② 19. ④ 20. ①
 21. ⑤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③ 27. ② 28. ① 29. ③ 30. ①
 31. ③ 32. ④ 33. ⑤ 34. ②

[1~3] 독서

[1-3] 독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한 독서’

지문해설 : 이 글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독서를 위해서 독자는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며, 선별한 내용을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읽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새로 얻은 지식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이렇게 구성한 의미를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재구성한다. 이때 기록은 망각을 방지하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며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주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과정과 의미 구성

1. 독서 방법 추론

정답해설 : 읽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1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서적 반응에 대한 내용이나 이를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것은 학문을 할 때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맥이 끊어질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기록

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와 연결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벗끼리 함께 모여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강론’하고 ‘기록’하는 것은 학문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벗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보여 준다.

3. 독서의 특성 추론

정답해설 : 학생은 글에 나타난 독서의 모습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반응에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학생의 반응에 모범적인 독서 태도의 발견이나 반성과 관련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학생의 반응을 통해 학생이 알게 된 내용은 짐작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학생의 추가적인 독서 계획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생의 반응에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4~9] 주제 통합

[4~9] 인문, (가) 새먼의 과정 이론 / (나) 재이론

지문해설 : (가)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보고, 두 과정의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가)는 이러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서 과정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주제] 새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과 한계

(나)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인 재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한대의 동중서는 재이가 군주의

권력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 이후, 인간사와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이해하는 예언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송대의 주희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켰다.

[주제]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의 시대에 따른 변용 양상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한 시도라고 말하면서 새먼의 과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과적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 규범과 형벌 사이의 인과 관계를 예로 언급하면서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과정 이론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근대 이후의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를 보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새먼의 과정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의 1문단에서는 동중서의 재이론이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재이를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는 동중서의 재이론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인과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로서 재이론을 제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대의 동중서의 재이론, 동중서 이후의 예언화 경향, 송대의 주희의 재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자 한 새먼의 과정 이론을, (나)에서는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한 재이론을 다루어 인과에 대한 동서양의 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1문단에서 한대의 재이론에서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경고를 내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대의 재이론에서의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인과적 과정은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를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4문단에서 과정 이론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인과 관계 그 자체는 흠이 지적하였듯이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고 언급하였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천문학의 발달로 일월식이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송대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주희가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대에는 일월식을 기이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이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내는 과정 2와 교차하면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 없어진 채로 b 지점까지 이동한다. 스크린상의 바나나의 그림자 모양이 변한 것은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에 따른 것으로,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한 결과는 아니다. 2문단에서 교차는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과정 2와 과정 3은 교차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과정 이론에서는 과정을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A]에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1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② 과정 이론에서는 두 과정이 교차하여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A]에서는 과정 1과 과정 2가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교차하였고, 이 교차로 인해 변화된 바나나의 물리적 속성이 b 지점까지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③ [A]에서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b 지점까지 줄곧 전달된다. 그러므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그러나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 3과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교차하여 도입된 표지는 그 지점을 지나가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⑤ 과정 3과 과정 4가 교차하면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티로폼이 부착된 스크린의 한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된다. 그러나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즉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지점에서는 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동중서의 재이론에서는 군주의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즉 인간사를 원인으로, 재이를 결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개별적 대응 방식은 ㉠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겨났다. 결국 ㉠은 인간사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이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고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은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보는 것이지 과거의 인간사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한 것은 아니다. ㉢ ㉠은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다. ㉠은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 대응을 강조하고 정치와 재이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다. ㉣ ㉠이 누적된 실정으로 인해 재이가 일어난다고 본 것은 맞다. 그러나 ㉠은 재이를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 ㉠은 군주를 경계하는 방법으로서, 군주의 누적된 실정이 재이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이는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재이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에서는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였다.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음양의 기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고 여기는 동중서의 재이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흠은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에서는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라고 말하고 있다. 과정 이론은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으로 보고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의 도입과 전달로 인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과학적으로 인과 개념을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에서는 덕이 잘 닦인 치세에는 재이가 없고 난세에는 변고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였다. 이는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하늘이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는 동중서의 생각,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희의 생각과 상통한다. ㉣ ㉠은 덕이 잘 닦이지 못한 난세에 재이와 세

상의 변고가 일어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의 교차를 통해 인과를 설명하는 과정 이론을 통해서는 ㉔를 설명할 수 없다. ㉕ ㉔에서는 지방관의 실정이 원인이 되어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런데 새먼은 표지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 이를 인과적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새먼은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지방관의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와 ‘대책을 찾으려’의 ‘찾으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라는 뜻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라는 뜻이다. ㉔ ‘어떤 것을 구하다.’라는 뜻이다. ㉔ ‘원상태를 회복하다.’라는 뜻이다. ㉔ ‘잃거나 빼앗기거나 말기거나 빌려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라는 뜻이다.

[10~13] 독서

[10-13] 사회, ‘베카리아의 형벌론’

지문해설 : 이 글은 형벌에 대한 체사레 베카리아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베카리아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로 인간을 전제하고,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 일부를 양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합의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며, 형벌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람들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만 하면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며, 형벌은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과도한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지니며, 개인이 양도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반대했다.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베카리아는 휴머니스트·공리주의자·사회 계약론자·일반 예방주의 형법학의 토대를 세운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베카리아의 형벌에 대한 주장과 근거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사람은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양도하며, 이렇게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주권을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자신의 자유를 양도한 개인들의 행복, 즉 전체 복리를 위해 주권 관리의 일환으로 법 위반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주권자는 개개인의 국민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을 통해, 개인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하였다는 것과, 법이 사회의 형성과 지속의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할애하여 공동체를 구성한 합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형성과 지속 조건으로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했다는 것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사람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라고 전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 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가 처음에는 크더라도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을 통해, 주권은 개개인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과 같다는 것과, 형벌은 주권자가 주권을 관리하기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한 것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 즉 주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고 하였다. 지키려는 공익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형벌의 범죄에 대한 방어 효과가 달성되므로, 형벌이 높게 설정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형벌은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을 통해,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 형벌이 설정한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을 통해 형벌의 목적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손익 관계에 따라 그 달성이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 달성에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가 양도의 범위, 즉 할애된 자유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과,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베카리아의 입장은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 즉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공리주의자로도 평가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문단에 따르면,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베카리아가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사형 폐지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보다 다른 형벌이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본 것이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이해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된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진다는 것과,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사형이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된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죽는 장면의 목적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

이 베카리아의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베카리아는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지 않았으며 무기 징역이 사형보다 더 큰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단절(斷絶)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로 쓰인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㉞는 ‘막아서 못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저지(沮止)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향유(享有)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와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둔감(鈍感)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 ‘지대(至大)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⑤ ‘수립(樹立)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14~17] 독서

[14-17] 과학,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와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유전자 복제, 감염병 진단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CR에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며 PCR 과정은 증폭의 바탕이 되는 주형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기는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실시간 PCR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형광 표식 탐침은 단일 가닥이 된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실시간 PCR에서는 발색도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주제] 각종 진단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통적 PCR와 실시간 PCR의 원리

14.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이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표적 DNA에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므로, 주형 DNA에도 프라이머와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처음의 양에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실시간 PCR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전통적인 PCR는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며, 이러한 가열 과정은 실시간 PCR에도 적용이 된다. ⑤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이와 달리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며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의 이합체에도 결합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다. 그러므로 한 사이클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었

을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16.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이므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사이클을 충분히 수행하면 표적 DNA의 양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는 DNA 증폭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 실시간으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 여부를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PCR의 과정에서 표적 DNA의 양이 한 사이클마다 2배씩 증폭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초기 농도가 높은 ㉠이 ㉡보다 많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많겠군’이 적절하다.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로 정의된다. 사이클의 값이 어떠한지 ㉠과 ㉡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이르는 것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동일한 양으로 증폭되었을 때이므로 ㉠에는 ‘㉡와 같겠군’이 적절하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은 ㉠은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른 표적 DNA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에 비해 빨리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Ct값은 ㉠이 작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작겠군’이 적절하다. **정답 ②**

[18-21] 현대소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김기범'이라는 한 지식인의 행적을 통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보이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처신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지식인의 부정적인 모습은 작중 김기범의 말에 언급된 '무사와 악사'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무사'는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롭고 도덕적인 인물인 체하며 명성과 지위를 얻는 인물을 나타내고, 그러한 무사의 옆에 기생하며, 다만 그의 행위들을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인물을 '악사'로 지칭하고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지식인의 모습을 작중 인물인 오일규와 김기범을 통해 그려 내면서 비판하고 있다.

[주제] 지식인의 부정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

1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로서 기범의 삶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이다. 또한 [A]에서 '나'는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해 평할 때 자신의 추상적인 생각을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것은 맞지만, 기범이라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③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한 부분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④, ⑤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기범이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요설들'을 떠들던 것을 떠올리며 기범이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은 기범이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나'의 추측이 기범의 실제 행위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기범이 일규의 장례식에서 '미친 듯이 웃'다가 '번쩍이는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한 '나'의 긴장인데, 이는 기범이 웃다가 우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나'가 드러낸 반응이므로 적절하다. ② ㉡은 기범에 대한 '임 씨'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다. '임 씨'는 처음엔 기범을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기범의 깎은 머리와 수염 등이 기존의 생각을 더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은 기범의 '철학'을 전달하는

‘임 씨’의 말로, ‘임 씨’는 기범의 생각을 ‘묘한 철학’이나 ‘이상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 씨’가 세상에 대한 기범의 관점을 상식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임 씨’는 기범과 관련하여 ‘미련하다’의 뜻을 흔히 쓰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호의를 담은 숨은 뜻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㉔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대한 기범의 독특한 관점을 지칭하는 어구이다. 이에 대한 ‘임 씨’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나’는 ‘가슴 한구석에 뭔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기범의 행동이 ‘한 가닥의 질서 위’에 늘어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는 것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기범이 깊은 산골로 온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임 씨’가 ㉔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냐고 청하였다. 또 ‘저(임 씨)’가 기범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㉔에 대한 서술은 ‘나’와 ‘저’의 대화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나’의 관념 속에서 이뤄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저’는 ㉔로 인해 기범을 오해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기범이 지껄였던 과거의’ ㉔로 인해 기범을 이해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저’는 기범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기범의 행동을 변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㉔에서 ㉔로의 변화 과정과 일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서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기범의 말은, 동일시하려는 대상인 일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할 경우,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목적인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인 성취감으로 볼 수 없다.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세상에 대한 기범만의 독특한 해석이자 관점이므로, 이를 일종의 감정적 차원인 성취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저’의 말로 보아, 기범은 일규의 죽음 이후에 충격을 받고 세상살이에 재미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일규의 죽음은 곧 기범이 동일시하려던 대상의 부재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근거할 때 일규의 죽음에 대한 기범의 충격은 세상살이에 흥미를 잃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기범의 말에 의하면

일규는 기범을 ‘발길로 걷어찼’으며, 기범이 이를 자신에 대한 일규의 외면으로 생각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외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범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시하려는 대상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으며 기범이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범은 ‘나’에게 ‘울적할 때마다’ 일규의 ‘쌍판’을 ‘허공에서’ 찾으며 일규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 일규가 기범이 동일시하려는 대상임을 고려할 때, 기범의 고백은 동일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은 심리적 위안이므로, 기범이 일규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임 씨’의 말로 보아, 기범이 아끼던 친구인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구천동’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동일시하려던 상대인 일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낯선 곳인 ‘구천동’과 같은 ‘깊은 산골’에 들어가 상황을 벗어남으로써 기범이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김시습, ‘유객’ / (나) 김광옥, ‘울리유곡’ / (다) 김용준, ‘조어삼매’

지문해설 : (가)는 청평사에 찾아들어 봄 산의 기운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털어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산새의 지저귀고 흐르는 냇물, 꽃잎, 나뭇잎과 버섯 등 다양한 자연물을 제시하여 봄 산에서 느끼는 흥취를 노래하였다. 마지막 두 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속세의 근심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주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화시키는 속세의 근심

(나)는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관직된 작가가 인조반정으로 재출사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한양 인근 지역인 울리에 머물면서 창작한 전체 17곡의 연시조로 『진본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작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등을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다)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은거하여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글쓴이는 뒤숭숭한 시절을 살아가는 답답함과 울화를 낚시를 통해 잊고자 하는데 이 낚시질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어지러운 세상을 피

해 은거했던 옛사람들의 심정에 동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혼탁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불의한 시대를 낚시로 잊고자 하는 지식인의 마음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 산’이라는 시어에서 계절이 드러나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 등을 통해 봄에 해당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에 나타난 ‘살구꽃’은 봄에 피는 꽃이므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살구꽃 저 쌓이니’에서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좋은 나물’이 ‘때 알아 돌아나’는 자연물의 속성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자연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속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물을 통한 교훈적 의미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 변화를 드러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나그네’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나)에서는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제10곡>에서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돌아온 울리에서 화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이 ‘울리’인데, <제1곡>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마을의 지명이 이와 같음을 언급하여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8곡>에서는 강산을 삼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한 부분 등에서 자연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조각배에 올라 밤낚시를 하며 느끼는 맑은 흥취(‘청흥’)를 강조하고 있다. ④ <제15곡>에서는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를 찾으려’는 등의 다양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7곡>에서 화자는 ‘최행수’와 ‘조동갑’을 부르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서재’를 지켜 ‘한묵의 유희로 폭 박혀 있’는 것도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고, 서재에 ‘머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으므

로 ㉔이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라 할 때, 이와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나.’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낚시 도구와 자신의 관계를 ‘객’과 ‘주인’이라는 말로 나타내었으며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찌’가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물고기가 찌를 문 순간으로,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낚시를 하기 전에 글쓴이는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낚시를 해 본 후에 글쓴이는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뒤숭숭한 세상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도연명’과 자신이 ‘수졸전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연명’은 화자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판교’가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며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글쓴이 역시 ‘판교’와 같은 마음으로 낚시를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판교’의 행적을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삼공’은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로 볼 수 있으나 (다)의 ‘성격 파산자’는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의 ‘세버들 가지’는 낚은 고기를 켜는 용도로 쓰인 자연물이다. 단순히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화자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의 ‘청수한 한 폭대’ 역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므로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고기’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므로 이를 화자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에서 ‘송사리’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서 글쓴이가 낚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글쓴이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나)의 ‘시름’은 번잡한 속세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의 ‘욕’은 속세를 버리고 은거한 옛사람들에 대해 글쓴이가 한때 가졌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은 아니다.

2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A]에는 낚시를 하며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꺾인 상황에서 오는 실망감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던 체면이 손상된 상황에서 오는 한탄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 글쓴이의 경이감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에도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에서 글쓴이가 새로운 이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B]에서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라고 말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온 골'은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울리'라는 마을이고, '주가'는 '울리'에 있는 공간이므로 '주가'와 '온 골'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것과 '넓은 다리'가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백 년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백 년 근심'은 속세에서의 삶에서 유발되는 근심이므로 '신선 골짜기'는 속세와 대립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울리'라는 마을에서 '이대도록 시원하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속세와 '울리'가 대비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낚시를 통해 세상일의 뒤숭숭함을 잊고자 하는데 (다)의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낚시의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못가'는 글쓴이의 지향이 담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므로, 그 이면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8~31] 문학

[28-31]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채봉감별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추풍감별곡'이라는 제목으로도 전하는 조선 후기의 애정 소설이다. '채봉'과 '필성'이라는 주인공이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혼례에 이르는 과정이 나타난 사건 전개 양상을 보면 전형적인 혼사 장애담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인물들의 파격적인 모습은 당시 변화하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에게 딸을 첩으로 넘기는 대가로 벼슬을 얻기로 한 김 진사의 모습은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세태를,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채봉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의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다.

[주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낸 젊은 남녀의 진취적인 사랑

28.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송이는 별당 건넌방에서 홀로 지내며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송이는 부모의 소식을 듣고 싶어 애태우고 있기는 하나 감사는 송이의 그런 형편을 알지 못하므로 감사의 걱정을 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송이가 공사 문첩에서 필성의 필적을 보고 난 뒤 감사에게 그 영문을 물어보자 감사는 ‘전 이방은 갈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송이는 감사의 말을 통해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던 차에 필성이 이방이 되어 헌신하였는데, 감사는 크게 기뻐하며 필성을 ‘여옥기인’이라고 칭찬한다. 이를 통해 감사가 필성의 문필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송이는 필성을 그리워하다가 책상머리에 엎드려 잠들고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서 송이는 장필성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었으므로 두 사람은 꿈속에서만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필성이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알 길이 없다고 하였고,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지내 ‘상사병이 될 지경’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필성이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송이는 ㉔에서 필성의 글씨를 보았고 필성이 ‘혹 공청에 드나’드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송이는 ㉔를 보고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성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친 송이는 만나지 못하는 필성을 향한 ‘상사’의 마음을 ㉕에다 글로 풀어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송이와 감사가 ㉔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사는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채지 못하였으며, 감사는 ㉕를 읽으면서 송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필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송이가 ㉔에서 필성의 필적을 확인하고 ㉔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은 맞다. 그러나 ㉕는 필성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썼을 뿐이지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 ④ ㉔는 필성이 작성한 것이므로 ㉔를 감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고, ㉕는 필성이 쓴 것이 아니라 송이가 쓴 것이다. ⑤ ㉔는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송이가 ㉔를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㉕는 송이가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풀어낸 것일 뿐,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달에 의탁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달’은 기러기, 두견이, 낙엽 등 다양한 자연물의 소리와 어울려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하고 있다. ③ 송이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라고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다. 이로부터 송이가 달을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송이는 ‘달 아래’에서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백낙천을 만났지만 자신은 필성을 만나지 못했다고 옛이야기 속 여인과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고,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며 연민을 표하였다. ⑤ 송이는 ‘달’을 보며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필성)을 만’난 추억을 떠올리고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라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달’은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도 하고,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기도 하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송이는 감사에게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은 송이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시간 표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송이가 공청 일을 하게 된 이후의 시간과 관련되므로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감사의 이방 선발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하지만 ㉡의 시간 표지가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이 부여되었다. ②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가 ㉢을 기점으로 삼아 공사 문첩을 보고 감사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계기로 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이 심화하게 되었으므로 ㉢은 서사적 전환에 관여하는 시간 표지라 할 수 있다.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 긴 시간만큼이나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이 매우 깊어졌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은 감사가 ‘팔십여 세’의 나이로 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밤낮없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때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 시간 표지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상황에서 흐느껴 울던 송이를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김기림, '연륜' /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지문해설 : (가)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연륜(年輪)'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르는 말로,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 온 '서른 나문 해'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나)는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참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대립되는 성격의 소재와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물건'은 소모적이고 물개성적인 도시인의 삶을 상징하고, '시퍼런 무쇠 낮'과 '꼬부랑 호미'는 개성적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또 '현대 아파트'는 도시적 일상의 공간이고, '털보네 대장간'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이다. 화자는 전자에서의 삶이 '똥덩이'처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느껴 후자에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가 '꽃 이파리처럼' 무너져 발 아래 깔렸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하강적 이미지의 '꽃 이파리'와 '똥덩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무쇠 낮'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는 '섬'으로 가는 화자의 움직임을 '갈매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처럼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독백적 어조’로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또한’은 ‘그것과 함께’라는 뜻으로, 대상과의 동질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 역시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의 ‘마구’는 ‘함부로’라는 뜻으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함부로 취급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비슷하게 취급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마구’는 화자가 자신과 ‘플라스틱 물건’ 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열렬히’는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강렬하다’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② (나)의 ‘한꺼번에’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량으로 소비되는 물개성적 ‘플라스틱 물건’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이 말은 ‘하나씩’과 대비를 이루어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꼬부랑 호미’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③ (나)의 ‘온통’은 ‘전부’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부끄럽다는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날로’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당장’은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플라스틱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주름 잡히는 연륜’은 ‘피려던 뜻’이 굳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불꽃’은 화자가 추구하려는 열정적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연륜’에는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불꽃’이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꼽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서른 나문 해’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의미하는데, 화자가 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③ (나)에서는 도시 문명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화자가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고 했는데, 앞서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한 사물들은 털보네 대장간의 ‘무쇠 낫’이나 ‘꼬부랑 호미’이다.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를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걸려 있고 싶다’는 결핍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섬'으로 가려는 화자는 그전에 '육지'에 초라한 경력 즉, 지나간 시간을 막아두겠다고 하였다. (나)에서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과 같다고 여긴 화자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가)의 '육지'와 (나)의 '버스'는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부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② 38. ⑤ 39. ⑤ 40. ③ 41. ④ 42. ③ 43. ②
44. ① 45. ⑤

[35~36] 언어

[35~36] 용언의 활용 양상과 표기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과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의 ‘활용’에서 각 용언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활용 정보’를 통해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면 이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사례를 통해 보이고 있다.

[주제] 용언의 활용 양상과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35.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해설 : ‘개문다’는 ‘개문고, 개문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엿듣다’ 역시 ‘엿듣고, 엿들어’ 등으로 활용하는 ‘ㄷ’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과 ㉡을 모두 만족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구르다’는 ‘구르니, 굴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잠그다’는 ‘잠그니, 잠가’ 등으로 활용하는데, ‘ㄹ’이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구르다’와 ‘잠그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 ‘흐르다’는 ‘흐르니, 흘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푸르다’는 ‘푸르니, 푸르러’ 등으로 활용하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 ‘뒤집다’는 ‘뒤집고, 뒤집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껴입다’는 ‘껴입고, 끼입어’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두 용언은 ㉡은 만족하지만 ㉠을 만족하지 않는다. ㉣ ‘붙잡다’는 ‘붙잡고, 붙잡아’ 등으로 활용하는 규칙 용언이다. ‘정답다’는 ‘정답고, 정다워’ 등으로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붙잡다’와 ‘정답다’는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하지 않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 ‘쌍- + -으니’의 과정에서 ‘ㅎ’이 탈락하여 [싸으니]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쌍으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체가 나타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 ‘서- + -어’의 과정에서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

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서’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㉔ ㉕ ‘끄- + -어’의 과정에서 모음 ‘ㅡ’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㉖ ㉗ ‘풀- + -니’의 과정에서 ‘ㄹ’의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푸니’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㉘ ㉙ ‘믿는’은 교체(비음화)가 일어나 [민는]으로 발음되는데, 그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믿는’으로 표기함을 보여 준다.

[37~39] 언어

37.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㉔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노래를 부르기’로, 안은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㉕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㉔로 분류된다. ㉖에서 안긴문장은 부사절 ‘아무도 모르게’로, 안은문장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㉗는 서술어로 쓰이지도 않고 체언을 수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㉔와 마찬가지로 ㉔로 분류된다. ㉘에서 안긴문장은 명사절 ‘동생이 오기’로, 안은문장에서 체언인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㉘는 ㉕로 분류된다. ㉙에서 안긴문장은 서술절 ‘마음씨가 착하다’로, 안은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㉙는 ㉖로 분류된다.

정답 ㉔

38. 담화의 특성

정답해설 : ㉔의 ‘저희’에는 청자인 선배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자인 후배 2가 후배 1과 자신을 함께 낮추기 위해 ‘저희’를 사용한 것이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㉔ ㉕의 ‘학교에서’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부사어이고, ㉖의 ‘학교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주격 조사 ‘에서’가 결합한 주어이다. ㉔ 후배 2가 이전 발화에서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㉕의 ‘우리’에는 화자인 선배와 청자인 후배 1, 후배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㉖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라는 표현에서 ㉕의 ‘자신’은 ‘동아리’를 가리킨다. ㉔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한 학교와 동아리 간의 입장 차이라는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볼 때, ㉕의 ‘서로’에는 예산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㉕의 ‘학교’와 예산안을 제안한 동아리에 소속된 ㉕의 ‘우리’가 모두 포함된다.

39. 단어의 의미 관계

정답해설 : ‘목도리를 한 코씩 뜨다’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

듬'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뭍은 코'의 '코'는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② '어망의 코'의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③ '긴 코'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④ '코를 다쳐서'의 '코'는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로, ㉡에 해당한다.

[40~42] 매체

40.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웹 페이지 화면 하단부에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꼭지를 제공하여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는 제시된 기사 중에서 관심이 있는 기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아래에 'SNS에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 기능을 통해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기사의 아래에 '좋아요(213) 싫어요(3)'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능은 수용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뿐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는 없다. ④ 기사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과 그래프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지만, 청각을 결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기사의 하단에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어 있지만, 이 정보는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A]에는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추이'와 '여행 1회당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시각 자료는 △△군 관광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숙박 시설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시각 자료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시각 자료를 통해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 평가를 받아 왔다.'라는 내용 뒤에 시각 자료를 배치하여 ○○초등학교를 숙박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② 왼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군 관광객 수가 늘어나

고 있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우상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③ 오른쪽에 배치된 시각 자료에서는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지폐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프로 제시하여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⑤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이 작성한 메모 중 ‘셋째 장면(#3)’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상 제작 계획’의 셋째 장면(#3)에서는 메모의 내용과 달리 주요 시설을 건물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사의 제목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폐교의 재탄생’이라는 제목을 넣어 도입 장면을 구성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②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서로 대비가 되는 배경 음악과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숙박 시설을 중심에 배치하고 숙박 시설과 인근 관광 자원과의 거리를 표시하여, ○○초등학교가 지리적으로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자막을 구성하여 기대 효과를 드러내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기사의 댓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겁게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연속적인 그림으로 제시하는 계획은 적절하다.

[43~45] 매체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진행자’의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 휴대용 선풍기 인데요.’라는 말과 ‘박 기자’의 보도 내용을 통해 (가)가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장면 4]에서 다룬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기준을 알려 주고 있다.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었다는 점이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③ (나)에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이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장면 3]에서 시민 인터뷰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가 아닌 한 명의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만 제시되고 있다. ⑤ (나)는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

는 내용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담고 있는 정보의 양도 (가)에 비해 적다.

44. 매체의 언어적 특성

정답해설 : ㉠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진행자가 자신이 궁금한 내용을 시청자에게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에는 어떤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청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진행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명사 ‘휴대용 선풍기’로 문장을 마무리하여 시청자가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휴대용 선풍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였다. ㉢ ㉡의 앞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다양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으며, ㉣에서는 제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화제가 전환되고 있으므로 ‘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였다. ㉤ ㉢에서 박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 뉴스에서 박 기자는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할 때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뉴스의 마지막 발화인 ㉢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현명한 선택’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나)가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가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의 이미지는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각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나)는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문구를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휴대용 선풍기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한다. ㉡ ‘자료’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는 문구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의 풍력이 더 세졌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에서 소비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언급한 풍력과 같은 제품 성능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료’는 ‘안전성을 보증하는 KC 인증’이라는 문구로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다. ㉣ (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는 ‘내 손 안의 태풍’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제품이 지닌 강력한 풍력을 강조하고 있다.